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2년 11월 · 2026년 10월 개정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베드로전서 3장 짧은 해설,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 트위터, 2022년 11월

베드로전서 3:6에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가 말을 건네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결혼에서 머리 됨과 권위의 의미를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1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어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말이 없이도 아내들의 행실로 얻어질 것이다. 2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정결한 너희의 행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땋거나 금 장신구를 걸치거나 옷을 차려입는 겉모양의 단장이 되지 말고, 4 마음의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라는 썩지 않는 장식으로 꾸며지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다. 6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라 불렀던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움에도 겁내지 않으면 너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다.**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여기서 베드로가 사라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주라고 부르는 곳은 단 한 곳뿐인데, 그것은 그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신적인 방문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녀가 웃을 때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이런 즐거움이 있으랴?'" (창세기 18:12). 언뜻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드는 본문치고는 이상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창세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는 책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유언을 접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아마 1세기나 2세기에야 생겨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주 아브라함"이라는 언급 가운데 어느 것도 베드로의 언급을 설명해 줄 만한 순종의 문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답을 창세기 18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문맥을 봅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과 결혼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세상의 기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모든 사회 구조를 옳다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결혼에 이르렀을 때, 아내들이 복종해야 할 이유로 그가 드는 것은 여자가 열등하다거나 종속된 존재라거나 다른 역할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냥 떠나 버릴 가능성이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아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조용한 증언으로 이방인 남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8장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라가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것은 아이로 인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으므로, 그녀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과정에 참여했고 예언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문화 속에서 이방인 남편과 아이를 갖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14에서 바울이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베드로전서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도 위계적인 결혼의 규범을 세우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하듯이, 그들에게 아무 선택지도 주지 않는 문화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합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한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을 건네며, 처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듣지만, 그 반대는 결코 없습니다. 칠십인역은 창세기 16:2에서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베드로전서 3:6에서 사라의 순종에 쓰인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아브람이 사래의 말에 순종하였다.**

베드로전서 3:7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절에 본동사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본들은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전치사구 "kata gnōsin"을 마치 동사인 것처럼, 이를테면 "배려하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kata gnōsin"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려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본동사 없는 이 "이와 같이"(homoiōs)는 이 문장이 말하자면 동사를 빌려 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는 앞의 명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앞의 세 단락은 모두 같은 동사 "hypotassō"를 써서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문맥이 제공하는 유일한 명령은 "복종하라"이며, 다시 한번 "복종하라"는 3:7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와 같이[homoiōs]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과 "이와 같이[homoiōs] 복종하는 남편들" 사이의 긴밀한 평행은 당연히 "이와 같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는 남편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남편은 이 힘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내를 배려와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그 문화에서 여자가 가졌던 더 약한 사회적 지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지위가 여자를 더 상처받기 쉬운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라"는 베드로의 지시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종하고 귀히 여기라는 명령의 진지함을 강조하려고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너희 기도가 아무것에도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에서의 상호성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베드로의 비전은 상호성(mutuality)의 결혼입니다. 그 안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 줍니다.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2022년 11월 8일